전통입사기법 재현 염주합 '영예'

전승공예대전서 국무총리상 받은 이경노씨

"출품하러 가는 날 부처님께 기원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명호를 계속 불렀습니다. 큰상은 기대도 안했는데 이렇게 발게되니 다 부처님 가피인 것 같습니다." 지난 88년부터 전승공예대전에 꾸준히 응모해온 불자 이경노씨(39)는 그동안 특별상 2번 장려상 2번 등을 수상하므로써 벌써부터 그 재능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왔다. 이번에 국무총리상을 받은 염주합은 전통입사기법을 충실히 재현한 섬세한 작품. 염주합과 같이 응모한 '철제입사동경걸이' 역시 입선에 드는 행운을 안았다. 은사인 최교준선생과 진천 보탑사 상륜부의 염주합을 제작하면서 작품의 힌트를 얻었다는 이씨는 지난 겨울부터 퇴근후와 일요일 등 틈나는대로 작업했다고 전한다. 국가문화재수리기능자로 등록(철제분야 938호)되어 최교준선생과 함께 각 사찰, 궁 등 문화재보수에 많이 나서고 있다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손재주가 좋은 걸로 소문이 났었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학교도 못마치고 '기술을 배우겠다'는 일념으로 상경해 장석일을 4년간 하다가 80년부터 전통금속공예인 입사(入絲)일을 배우기 시작, 올해로 16년째에 이른다.

고찰에 가면 단청이며 문양, 향로 등을 세밀히 관찰하고 기록해 작품제작에 참고로 한다는 그는 "부족한 부분을 더욱 연마해 전통기법과 현대적 디자인을 조화롭게 배합시킨 훌륭한 작품을 만드는 최고의 입사장(入絲匠)이 되겠다"며 "나이가 더 들면 지리산 뱀사골 근처인 고향에 공방을 마련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힌다.

"보탑사 염주합 제작 동참 작품 힌트 얻었어요"
사찰가면 단청·문양등 세밀 관찰·기록 습관

이경숙 기자

「시방천불탱화」등 불교소재 다수 입상

제21회 전승공예대전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주최하고 문화재관리국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후원하는 '제21회 전승공예대전'에서 이경노씨의 '철제입사염주합'(사진)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김용우씨의 '시방천불 탱화'가 특별상, 하경진씨의 '미타삼존탱화' 조정훈씨의 '부모은중경목판'이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아미타탱화(나혜안)' '금니영산회상도(김재범)' '지장보살(홍경팔)' '수월관음도(문종임)'이 입선하는 등 불교소재 작품 다수가 입상의 영예를 안았다.

금속공예를 비롯 7개 전승공예분야에서 302명(총 378종 974점)이 응모한 이번 전승공예대전의 2등상격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철제입사염주합'은 15㎝×8㎝의 크기로 고려시대의 나전칠기에서 착안하여 철제에 전통입사기법을 충실히 재현한 작품이다.

불심시심 〈66〉

두 눈에 든 하늘 땅

從古朝陽冠馬韓 (종고조양관마한)	옛부터 조양 땅 마한의 으뜸
此臺形勝最堪觀 (차대형승최감관)	이 누대 뛰어난 경치 가장 볼만 해
群山北走千重險 (군산북주천중험)	뭇 뫼 북녘으로 달려 천겹으로 험하고
大野東來萬里寬 (대야동래만리관)	남으로 뻗은 큰 들 만리로 트이다
割地長江銅鏡濶 (할지장강동경활)	땅을 가른 긴 강은 거울처럼 열렸고
背霜秋葉錦屛寒 (배상추엽금병한)	서리 입은 가을 잎 비단 병풍이나 싸늘하다
乾坤盡入雙眸裏 (건곤진입쌍모리)	하늘 땅 모두 두 눈에 드니
五霸何羞九合桓 (오패하수구합환)	패왕이라 해서 천자에게 부끄러움 있나

이 시도 설암선사의 시이다. 무진대(無盡臺)라는 누대에 올라서 지은 시다. 이 누대의 경치가 옛날 마한 땅이었던 호남에서 제일이라는 말을 여실하게 표현한 시이다.

이 누대를 중심으로 북으로 달려간 산이요, 남남으로 내려가는 들이다. 산은 달려가고 들은 내려간다. 달리다(走) 내려오다(來)도 묘한 대구(對句)이지만, 거기서 느끼는 이 거대한 자연은 그저 시원하기만 하다. 천겹으로 험하고 만리로 넓다 하였으니, 앞에서 느끼는 강함과 뒤에서 느끼는 부드러움 역시 강유의 자연스러운 화합이다.

강을 사이에 두고 두쪽으로 동강난 대지, 그 강은 거울처럼 맑고 훤하다. 대지의 부동과 장강의 유동에서 또다시 동·정이 교차되면서 조화를 이루어 거울이라는 한 단어가 한 구 안에서 이루어 놓은 대구를 감싸안고 있다. 서리를 등진 단풍이라 하였으니 단풍잎이 서리를 짊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업었다고 번역하였다. 그것은 비단으로 수놓은 병풍이다. 누대의 뒤를 에워쌌을 것이기에 더욱 그렇게 느낀다. 병풍은 글자 그대로 바람을 가리워주는 것이다. 추위에다 따뜻함으로 감싸주는 포근함이라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차다는 글자와 맞물려 있다. 그것이 바로 단풍잎 병풍의 쌀쌀함이다.

이러한 자연을 배경으로 서있는 주인의 두 눈동자는 이 드넓은 공간을 다 갈무리하고 있으니, 이 자연의 주인이 된 셈이다. 그렇다면 아무리 변방에 사는 사람이지만 천하를 소유한다는 천자가 부러울 것이 없지 않느냐. 옛날 패제후가 천자 못지않던 바로 그 자세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인사동 가면 차향 '물씬'

초의선원 '차문화강좌' 개설
전통행다법 등 실습강의
"茶로 마음의 여유 찾길"

서울에서 유일하다시피 전통의 멋이 오롯이 살아있는 인사동. 호랑과 전통찻집 고서점 그리고 전시를 알리는 포스터가 즐비한 예술의 거리 인사동의 한 가운데에 위치한 초의선원에서 차문화의 올바른 정착과 보급을 목적으로 열리고 있는 차문화강좌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다선일여라는 말처럼 차와 선을 통해 진실한 삶에 눈뜨기를 추구합니다. 차가 복잡하기만한 절차를 갖고 특수한 층만이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야겠다는 것이지요. 또한 차생활을 통해 삶에 여유를 찾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초의선원 원장 용운스님은 우리차보급운동을 시작하던 70년대에 비해 지금은 차인구가 많이 늘었지만 아직도 차가 일본의 전유물인줄 알거나 커피 등 서양음료를 더 좋아하는 세태에 우려를 표시했다. 앞으로 경제가 안정되고 삶의 질을 생각하는 사회분위기에 접입한다면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차문화강좌개설도 이러한 우리것 찾기의 한 일환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차문화강좌에는 대구 광주 부산 등 지방에서 오는 수강생들이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4시 실시되는 기초반 강좌는 전통행다법, 차에 대한 개론, 한국차문화사, 차음식과 다식만들기, 차의고전(동다송 다신전 다설 등)읽기 등 차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지식을 쌓는 3개월 코스로 수시로 접수(02-732-2317~8)를 받고 있다. 매주 수요일(오후 2~4시)의 전문반은 기초반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양성코스이다. 이외에도 매년봄 제다기행 가을엔 차꽃따기 행사와 중국 대만 등으로 차문화연수를 수시로 가지며 국제무아차회에도 참가하는등 차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관심을 일깨우는 행사를 많이 실시하고 있다.

"현대인중에는 마음에 담장을 쌓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벽만 허물면 천하가 다 자기 것인데 자기 영역을 확보하는라 벽쌓기에 더욱 철저하지요. 차가 이러한 벽을 허물고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다리역할을 할 것입니다."

용운스님은 차 한잔을 손수 끓여 나눠 마실 수 있는 여유를 가짐으로써 각박한 세상이 한결 여유로워지고 삶이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숙〉

◇강의후 용운스님은 수강생들과 차를 마시며 차와 선, 삶에 대한 자상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사진=고영배 기자〉

◇조각가 강대철씨가 제작한 성철스님 존상. 무소유와 청빈한 삶을 몸소 보여주신 그 올곧은 수행정신을 기리고자 제작 봉안된다.

성철스님尊像 해인사 봉안

문도회 24일 백련암 고심원서 제막법회

성철스님문도회(회장 법전스님)는 성철스님 열반3주기를 맞아 성철스님의 존상(尊像)을 제작, 오는 24일 해인사 백련암 고심원에서 제막법회를 갖는다.

이 동상은 높이가 180㎝ 무게 900㎏으로 가사를 걸친 스님이 오른손에 육환장을 들고 앉아있는 모습으로 표현됐으며 조각은 강대철씨가 맡았다.

강대철씨는 "지난 일년여동안의 성상 제작기간은 스님으로부터 무언의 법문을 들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성상을 통해 다시한번 성철스님의 가르침을 느낄수 있고 스님의 큰 수행을 본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종교교류·화합 '음악으로'

종교음악제 29일 국립극장서
BBS 가릉빈가 합창단등 공연

'96 종교음악제가 오는 29일 저녁 7시부터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대종교인 불교 개신교 가톨릭의 음악인들이 합동으로 종교음악의 장을 마련하여 종교간의 활발한 교류 및 화합을 이루게 하고 종교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자 실시되는 종교음악제는 불교방송과 기독교방송 평화방송이 공동 주최하며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후원한다.

이번 음악제에는 불교방송의 가릉빈가합창단(단장 김창영)이 참여, 칸타타 '사바의 노래'를 초연한다. 반영규씨가 작사하고 김동환씨가 곡을 쓴 이곡은 탐·진·치에 빠진 중생이 자신의 죄업을 낱낱이 참회하고 불법을 만난 인연으로 기어코 대승보살이 되고야 말겠다고 서원을 세우며 대자대비 부처님을 보름달 단비별에 빗대어 부처님의 무량공덕을 찬탄하는 내용의 교성곡이다. 바리톤 구자경씨가 솔리스트로 참여하며 국립경찰교향악단이 반주를 맡는다.

문화소식

'거룩한 스님' 등 3편 찬불가 가사공모서 선정

대한불교찬불가제정위원회는 제6회 찬불가 가요 동요 등 가사현상공모에서 '거룩한 스님' 등 3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총 91편이 응모된 가운데 불교동요부문에는 이운지(제천 덕주사)의 '우리 스님', 찬불가부문에 이만호(연등극제불교회관)의 '거룩한 스님', 불음가요부문에는 진진욱 작 '산사에 올라'가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11월 9일 삼청동 칠보사.

동국대 국악대제전 경주·대구·서울서 공연

동국대학교 국악과는 개교 90주년을 기념하는 국악대제전을 경주(10월 30일 저녁 7시 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 대구(10월 31일 저녁 7시30분 수성 동아백화점 아트홀) 서울(11월 4일 오후 5시 동대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각각 갖는다.

이번 국악대제전에서는 세령산, 작법무, 창작불교음악 윤회, 국악찬불가, 관현악과 창화초사거리, 관현악과 사물놀이 신모듬 등 불교음악과 무용, 전통두용이 어우러지는 구성으로 진행된다.

전통공예정보센터 서울 역삼동에 개설

우리나라 전통공예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자리에 모은 '전통공예정보센터'가 지난 12일 강남구 역삼동 인간문화재 공예품 상설전시관에 문을 열었다. 정보센터에는 8천여점의 자료가 수집되어 있다.

(02)501-0087

문화유적 발굴사진전 11월5일까지 경복궁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동현)는 그동안 발굴 조사한 청동기시대 유적을 대상으로 제3회 문화유적발굴사진전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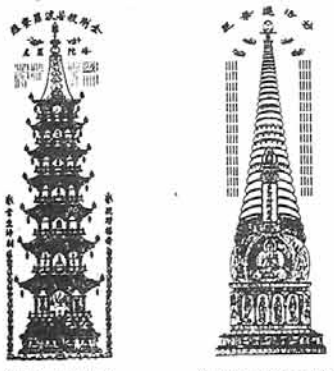
오는 11월 5일까지 지하철 경복궁역 미술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유적발굴사진전은 부여 송국리 유적, 무안 성동리 고인돌 유적등 40여건 총 3백여점의 사진이 전시된다.

(02)732-6385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발휘되어 현세에 사는 불자들의 만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고 있는"

"신비의 佛탑다라니에 대한 영험록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神秘의 佛塔다라니"



〈금강경 신탑다라니〉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고급 백색공단 천 위에 100% 순수 양질의 경면주사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가로)63㎝×(세로)160㎝

◉佛탑다라니의 신비스러운 영험력!

①본회의 불탑다라니에서만, 자체에서 약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 주는 강력한 氣(기)가 계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②이 氣(기)는 심신깊은 불자에게는 더욱 강하게 작용하여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위신력을 발휘하며,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변화시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불탑다라니를 몸에 대면, 몸속에 氣(기)의 흐름이 감자기 강해짐을 직접 느낍니다. 이 기(氣)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3개월 정도 몸에 계속적으로 받게되면, 약했던 운기가 강해지고 그로인해 운세가 최상으로 바뀌면서 모든 일이 저절로 막힘이 없이 풀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③그리고 금강경 신탑다라니를 이용하여 인체와 영계에 파장되는 氣(기)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고 그 강·약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인간의 길흉화복까지 판단할 수 있으며 조상령의 천도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판단이 그대로 적중된다는 사실입니다.

• 현재 자기가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인지? •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 조상님의 영가가 천도되었는지? • 하고자하는 일이 성사될 것인지? • 무슨 일을 하면 될 것인지? • 대학입시에 합격할 것인지? • 어느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는지? • 현재 앓고 있는 병환은 낳은 것인지? • 언제까지 아플 것인지? 등 어떠한 일이든 금강경 신탑다라니안에 적어 넣고 기(氣)테스트를 해보면 이루어질 것은 氣(기)가 나오고,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기 어려운 것은 氣(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기(氣)가 나오면 심중팔구(80~90%)는 거의 그대로 적중된다는 점입니다. 氣(기)가 나오지 않을때는 2개월이상 佛탑다라니 氣(기)를 받으면 운세가 바뀌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허다합니다.

④또한 우주공간에는 수없이 많은 온갖 영(靈)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이승에서 조금이라도 인연을 맺는 인간의 몸에 빙의되고, 관념과장을 일으켜 집안에 우환이 들끓고 되는 일이 없고, 집안에 풍파를 일으킵니다. 이때 불탑다라니를 집안에 소장하거나, 몸에 지니고 생활하거나 조상의 묘에 안장시켜드리면, 이런 영들이 하나 둘 씩 천도되기 시작하면서, 100일 정도 지나면 모든 영들이 천도되어 떠나가며 그때부터 집안이 조용해지고 하고자 하는 일이 저절로 풀려 나갑니다.

⑤불탑다라니를 부처님에 대한 진실된 기도와 병행치 않고 단순히 부적으로만 생각하고 사용하는 분이나, 타종교인에게는 영험력이 일어나지 않고 氣(기)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님들께 佛탑다라니를 이용한 기(氣)테스트 방법과 처방전이 수록된 스님용 책자와 영험록 책자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포교차원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어 불심을 깊게 하는데 일조하고, 재앙과 재난을 예견하여 그것을 피해가고 소멸시켜 주는 방편으로 신도들께 사용해 주심으로써, 다소나마 불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불자님들께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 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탑다라니 조성경위와 사용방법 등이 같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책만 보셔도 충분히 참고가 되며 스님용 책자요청은 가능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경상남북도 대한불교 상담문의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각광)
부설:불교바라밀 건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신상가 5동 5층)
전화:(051)864-3740

■기타지역상담문의및 책자신청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0335)34-9490, 39-1906,
야간(0342)706-3060

불기2541년 한국의 명찰 나한도 달력 보급안내

■ 달력크기/26cm×26.7cm ■ 보급특가 1부당 /1,300원

귀의 삼보하옵고, 저희 감로기획에서는 불기 2541년 정축년 불교달력(한국의 명찰, 나한도)을 기획·제작하여 보급합니다.
전국에 계신 대덕 큰 스님의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7 FAX.(02)738-8682